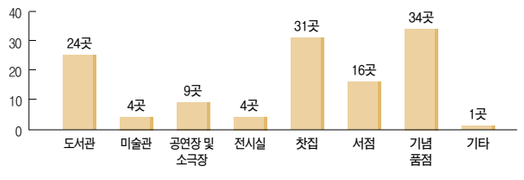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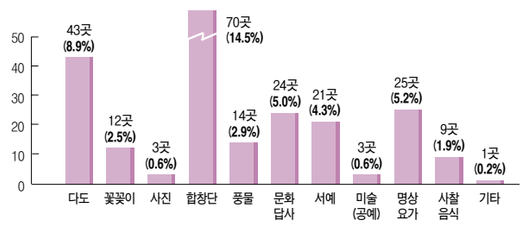
불교 문화프로그램(시설) 운영 현황은? / 조계종 사찰 484곳 조사

문화시설 운영사찰 16% 불과

사찰내 문화시설 현황



사찰의 문화모임 및 프로그램 현황



조계종 소속 사찰 83.9%가 문화관련 시설이 전무했고, 16.1%만이 1개 이상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문화부(부장 탁연)가 지난해 조계종 소속 사찰 2199곳 가운데 본 · 말사 주지연수교육에 참여한 1000여 사찰 주지 스님을 대상으로 각 사찰의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과 단체 현황을 조사한 설문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불교행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찰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현황조사에는 1000개 사찰 가운데 약 22%에 달하는 484개 사찰이 응답했다.

조사 대상 문화시설은 공연장 및 소극장, 미술관(전시실), 도서관, 찻집 · 서점 · 기념품점 · 기타로 분류했다. 문예진흥법이 규정한 문화시설에는 이 외에도 박물관을 비롯해 지역문화복지시설과 문화보급 전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문화부 박종학 문화팀장은 "복지시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총람을 통해 세세히 공개돼 있고, 성보박물관은 <성보박물관 현황조사보고서>가 2003년 나왔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사찰에서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 불교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있지만 사찰과 지역민이 문화시설을 통해 상시 접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저조함을 드러냈다.

전체 응답사찰 484곳 가운데 문화관련 시설이 있다고 답한 78개 사찰은 모두 123개의 시설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시설은 66.7%를 나타낸 전통찻집(31곳) · 서점(16곳) · 기념품점(34곳)이었다.

도서관(24곳)이나 미술관 · 전시실(8곳), 공연장 및 소극장(9곳) 등은 총 41곳으로 문화관련시설 중 33.3%에 그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문화관련 시설 보유 현황은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낙후돼있음을 나타냈다.

교구별로는 해인사 말사가 12개 사찰에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동화사 은해사 범어사 송광사 말사가 각각 9개로 나타나 영남지역 교구와 교구세가 큰 교구에서 보다 많은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27.5%
합창단 70곳에서 운영 '활동 왕성'
다도 · 명상 · 답사 모임 각 10% 미만
생활 밀착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시급
문화포교 의지 · 시설 · 자원 부족 여전

문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사찰 가운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 관련 모임을 운영하는 사찰은 모두 133곳(27.5%)으로 확인됐다. 133개 사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도 있어 조사된 프로그램은 총 224개로 나타났다.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합창단. 전체 조사사찰 중 14.5%인 70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다도모임이 8.9%(43곳), 요가 · 명상모임이 5.2%(25곳), 문화답사모임이 5.0%(24곳), 한문 · 서예학당 운영이 4.3%(21곳), 풍물 · 사물놀이패 운영이 2.9%(14곳), 꽃꽂이모임이 2.5%(12곳), 사찰음식강좌가 1.9%(9곳), 사진과 미술이 각각 0.6%(3곳) 순이었다.

합창단이 가장 왕성하게 운영되는 것은 근대 이후 불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찰마다 합창단을 만들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도모임과 문화답사, 한문 · 서예학당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불교와 전통문화의 친숙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 참여사찰의 72.5%인 351개 사찰이 문화단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일선 사찰에서 문화포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현할 인적 · 물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0일 현황발표회를 가진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 걸맞게 불교문화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통해 향후 중단기 종책 결정에 밑거름 마련하고자 조사하게 됐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부로부터 위탁받아 조사를 진행한 김유신 대표(불교문화기획 불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사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문화프로그램 및 불교가 갖는 고유의 문화원형들을 향유하되 즐기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화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고, 사찰이 종교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일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문화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리곁에 온 1400년전 신라불교

분황사 출토유물 특별展(5. 11~12. 29)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

바둑판전

숟가락거푸집

사리장엄구 포함 250여점 전시
바둑판전 숟가락거푸집 등 눈길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돼 자장 · 원효 대사 등 한국불교역사의 걸출한 스님들이 거쳐가며 1400여 년간 성쇠를 거듭해온 분황사가 우리 곁에 온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가 5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특별전 분황사 출토유물'을 개최한다. 1990년부터 8차에 걸쳐 16년간 발굴해온 성과를 집대성한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의 발간과 '경주출토유물보관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발굴조사 출토유물을 비롯해 1915년 분황사 석탑 해체보수작업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국립경주박물관 소장)를 포함한 250여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분황사에서만 특징적으로 출토되는 기와들도 만날 수 있다. 창건 금당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화보상화문수막새 · 쌍조문암막새 세트와 1차 중건 금당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화문수막새 · 쌍조문암막새 세트 등이 눈길을 끈다. 신라시대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연화문 보상화문 당초문 용문 비천문 등 각종 문양 기와가 출토된 분황사 기와는 기와연구의 교과서라 지칭될 정도로 다양함을 자랑한다.

이번 전시 유물 가운데 가로 15줄 세로 15줄의 바둑판전(42×43㎝, 높이7.8㎝)은 흥미로운 유물로 인정받고 있다. 바둑판전과 함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유물은 바로 숟가락거푸집. 안압지, 황룡사지 등에서 출토됐던 숟가락의 거푸집과 함께 당시의 제작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황사는 창건 이후 8세기 중엽에는 대형 약사동상을 주성(鑄成)하고 1차 중건 금당을 건립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13세기 이후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에 건립한 보광전과 일제강점기(1915년)에 수리한 모전탑 등과 함께 사역이 대폭 축소된 상태로 남아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분황사 가람배치를 밝히기 위해 1990년부터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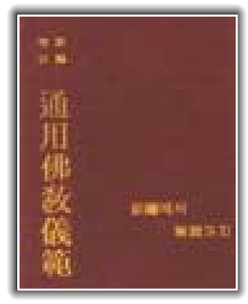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品'자형 창건 3금당의 존재를 비롯해 3차에 걸친 금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현존탑은 창건시의 원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음도 밝혀냈다. 더불어 현재 사역의 남북 외곽에서 확인된 당간지주 · 담장 · 축대 · 건물지 · 배수로 등은 분황사 전성기의 사역 범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학술자료로 인정되고 있다.(054)777-8834

강지연 기자

분황사 전경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매장 埋葬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